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 목회자들

복음의 오지인 이스라엘에서 크리스탈포럼 주최 목회자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어 목회자들이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됨으로 참 행복의 주인공이 되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족 복음화를 이룬 행복하다는 김정은 집사와 봉사를 하니 강건해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졌다는 박현호 권사 간증.

“감사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감사의 고백.

# 만민뉴스

제764호 2016년 11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이스라엘에서 개최된 2016 목회자 세미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참석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나라에서 사역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강한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매년 이수진 목사(사진 1)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이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 따르는 표적과 함께 선포되기 때문이다(사진 2 목회자 세미나, 사진 3, 4 각각 나사렛 생명교회와 텔아비브 와보라 만민교회 집회).

이스라엘 기독교 목회자들의 모임인 크리스탈포럼 주최, 목회자 세미나가 11월 3~4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라맛 라헬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에는 이스라엘에서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참석하였다. 세미나에 앞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한수경 찬양선교사가 히브리어, 러시아어, 영어로 부른 3개 언어 찬양과 파워워십팀의 수준 높은 무용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강사 이수진 목사(만민중앙교회 교역자회 회장)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올린 결과 성령의 감동함속에 풀이받아 설교한 성경 난해구절 일부를 증거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서의 첫 표적’,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어린양을

먹는 방법’,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예루살렘에서 죽는 삶’ 등 난해한 성경구절의 깊은 영적 의미를 설명함으로 목회자들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이 되었다.

이어 기도회를 통해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가르치기만 한 것을 회개하고, 행함으로 본이 되는 진정한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 목회자는 “이런 난해구절들을 풀어주시는 이재록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이제부터 기도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변화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온 총회장들은 내년에 자국에 와 줄 것을 강청하였다. 또한 홀로코스트 후원 연맹 회장인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는 자신의 고향 폴란드에 이수진 목사를 초청해 대형집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하

였고, 2018년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후원하고 자신의 단체에서 주최하는 거국적인 행사에도 초청하였다.

11월 5일 오전에는 나사렛 생명교회(담임 세르게이 보차르니코프 목사)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오후에는 텔아비브 와보라 만민교회(담임 토시 물렝가 목사)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설교하였다.

한편, 11월 2일 저녁에는 크리스탈포럼 창립 8주년 기념 자체 행사가 있었다. 크리스탈포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의 세력 앞에 힘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2007년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활발한 사역을 펼친 이재록 목사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으로 영적 담대함을 얻어 2008년에 결성하였다.

이후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비롯, 매년 찬양 페스티벌과 어린이, 청소년 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영혼들을 깨우고 있다. 또한 매년 우리 교회 선교팀을 초청해 기념 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함으로 이스라엘 목회자와 영혼들이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 및 성례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심고 행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11월 20일 주일 대예배를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로 드린다.

저녁예배 설교 후에는 본당과 2~6성전, 유아실, 수도관에 소재한 각 지성전과 전국 지교회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되새긴다.



2015 추수감사주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

#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16)

이 땅의 고통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죄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성을 통해 영계의 법칙을 깨우치니 간교한 뱀의 미혹에 빠졌던 첫 사람과는 달리 다시는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침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희열과 감동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행복을 얻기까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시험 환난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빛 가운데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십니다(요일 5:18). 질병이나 시험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삶의 분야 분야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지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영적 성장을 위하여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연단은 따릅니다. 이것은 죄의 보응으로 오는 재앙이 아니고, 상급 학교에 올라가기 위한 시험과 같아서 잘 통과하면 믿음도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 2.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에 더하여 사고와 재앙이 없이 평안한 한 해를 보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만큼 질병과 상관없이 살 수 있고 물질의 축복이 더해지며 가정이나 직장 생활도 평안합니다. 혹여 시험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켜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과 비길 수 없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당장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소원과 다르게 일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초신자 때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낙심하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한 대로 안 되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의심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반석에 이르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비유 들어, 자녀들이 큰 시험을 치를 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보다 더 조마조마합니다. 자녀의 고생을 대신이라도 감당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긴장 속에 기다리지요.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연단 중에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할 수 있어요.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허락하신 과정이니 멋진게 승리해서 영광 돌릴게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진실한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며, 전보다 큰 믿음과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셋째,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결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원대로 잘되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천 년을 하루 같이 기다리시는 사랑,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도 영혼들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보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목자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의 행군을 한 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알기에 “이제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요. “나는 악을 너무 많이 쌓아서, 죄가 너무 깊이 박혀서 안 되나 보다.” 했던 분들도 “이제는 나도 성결될 수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새 예루살렘이 이제 가깝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변화되어 반석으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왔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제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조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말씀한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이러한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늘 진리 안에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부모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만일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며 순종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해도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1. 참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경작하고 계시지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질병과 연약함, 가난과 피곤함, 이별과 배신 등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중심에서 깨닫게 됩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은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김정운 집사 (46세, 포항만민교회 남선교회 회장)

## “가족 복음화는 물론, 많은 응답과 치료의 간증이 넘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저는 하는 일마다 잘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 애썼지만 남은 것은 많은 부채뿐이었지요.

교회에 다니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 싶어 서울에 사는 큰누님에게 좋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여 2003년 4월부터 저는 포항만민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만민중앙교회가 왜곡 보도된 모방송사건의 여파로 주변에서 저를 만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누님(타교회 출석)이 “몇 차례 만민중앙교회에 가 보았는데 이재록 목사님은 좋은 분이요, 모방송사건 이후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후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누님의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당회장의 설교와 진실한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고, 권능의 역사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확실히 믿어졌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을 기도하며 전도해도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복음화 됨’을

당회장님께서 누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 당시 (주)라임인슈에 입사해 보험설계업을 시작한 후, 십일조 100만원을 드리는 축복을 받았지요. 이후 가족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결정적으로 아내는 당회장님의 꿈을 꾀 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마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울고 있는데 당회장님께서 오셔서 ‘마음껏 울라.’ 하시며 머리에 하얀 세마포를 씌어주시고는 바라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내와 함께 일가친척 복음화에 열심을 낼 수 있었지요. 더욱이 당회장님께서 온전히 가족 복음화가 될 것을 기도해 주신 후에는 부모님과 형님 가족, 처제 가족이 전도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껏 지내던 제사를 파하시고 제사 집기들을 내다버리셨고, 형님을 전도하셨지요.

형 김정구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단번에 담배를 끊고, 공황장애 증상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또 B형 간염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믿음으로 치료받아 건강해졌지요.

형수님은 위가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나 치료받아 이제는 잘 드시고, 어머니는 심장질환과 고질이었던 피부병과 무좀을, 아내는 허리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아들 다빈이는 발목을 빼어 걸을 수 없었으나 당회장님 설교를 듣는 중 치료받았지요.

처가집 식구들도 치료와 변화의 축복을 받았는데 장모님은 허리디스크를, 동서는 척추협착증과 극심한 무좀을, 처제는 손목과 허리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또한 처제가 작은 아들 중헌이의 머리에서 거미가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난 후에는 중헌이가 게임을 끊고 학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요. 큰아들 상혁이는 축농증을 치료받고 시력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평소 교회에 오면 뒷자리에서 잠만 잤는데, 목자님의 사랑을 느낀 뒤 변화되어 이제는 게임을 끊고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감사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봉사를 하니 관절염도 치료받고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박현호 권사 (60세, 봉사위원회 봉사부장)

저는 2006년부터 봉사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썩 풀어지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도 항상 몸이 가벼워지지요.

오히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기쁨으로 봉사를 하니 봉사한지 6개월 만에 치료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몸의 연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며 강건케 해 주셨지요.

주일에 성도님들이 점심으로 드실 국수 준비를 위해 평일에는 무, 멸치, 파 등 식재료를 주문하고, 금요일 오전부터 도착한 재료들을 다듬고 씻어 놓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준비해 둔 식재료를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배분하고 주일 새벽부터 각 식사 장소로 나눠 주지요. 1부 대예배 후에는 아동주일학교를 위해 육수를 만듭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부활절, 교회 창립 행사 등 특별한 날에는 더욱 준비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전에는 늘 염려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막도 있고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기쁘게 봉사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귀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만들어진 열매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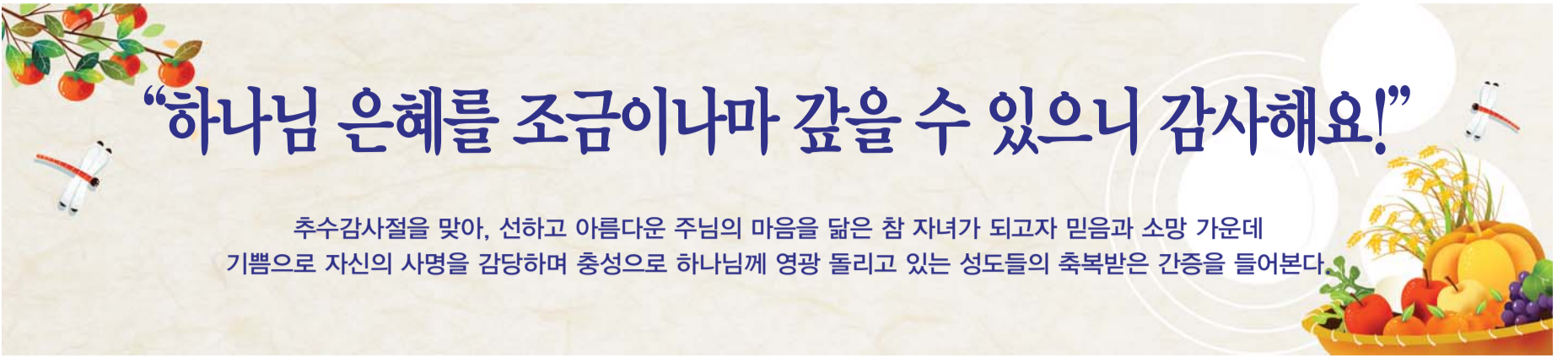
앞줄 왼쪽부터 사돈어른 김동주 성도, 조카 최중헌 아동, 어머니 김순도 집사, 장모 김소자 권사, 딸 김다예 자매, 아내 박경애 집사, 뒷줄 형수 김민희 집사, 형 김정구 집사, 동서 최성원 성도, 김정운 집사, 조카 김동호 형제, 아들 김다빈 형제, 조카 최상혁 형제, 처제 박경화 권사.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광주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748-5777, 010-3343-153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748-5777,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남구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결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2278-064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겸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3232-7504
- 봉당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으니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가 되고자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성도들의 축복받은 간증을 들어본다.

노익환 집사 (62세, 만민봉사대 일반대)

## “뇌졸중을 치료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1998년 2월,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뇌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했고, 이후 오른쪽 편마비로 진행되어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지요. 그해 5월 어느 날, 고향 친구인 이규동 장로가 찾아와 대뜸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 보니 만민중앙교회 ‘제6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였습니다.

저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와 하나님께 향한 신실한 모습에서 무엇이 믿음인지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끊지 못하던 술과 담배도 신속히 끊을 수 있었고,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면서

점차 마비된 몸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만민봉사대에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니다. 그 뒤로 주일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 구로동까지 오는 길이 설레고 행복하지요.

교회에 도착하면 큰 솥에 육수를 끓이고 그릇도 닦아놓습니다. 대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또 저녁예배를 마치면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휠체어에 태워 교회버스가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린 후 성전 청소를 하지요. 그래도 밤 9시부터 시작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까지 마치고 밤 11시가 넘

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어느덧 봉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뇌졸중 환자였던 제가 온전히 치료받아 강건해지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며 살아가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문희 권사 (47세, 영접위원회 영접위원)

## “변함없이 충성하니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1995년 결혼 후 의사로부터 자궁에 큰 혹으로 태아가 압박을 받으니 잘못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앞두고 불안하여 친척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그리하여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작정해 기도하던 중,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와 치료의 확신을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꿈을 통해 응답받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교회에서 여러 사명을 받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는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으로, 점심때는 회장단으로 영혼들을 돌아보고 친교실 봉사를 마친 뒤, 저녁예배 때는 살롬성가대원으로 찬양하며 바쁜 주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영접위원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해외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때면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꼈지요.

그러다보니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발견케 하였고, 결국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황순욱 집사는 직장에서 단장으로 승진하고, 아들 예준이는 올해 초 한양대학교 공대 과 정시수석으로 합격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미옥 권사 (47세, 예능위원회 헤어&메이크업팀 팀장)

## “사명을 통해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 6년간 신앙생활 하던 중, 우간다와 케냐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2004년, 한국에 와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위장병을 치료받는 체험을 통해 교회와 목자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헤어숍을 하면서 종종 GCN방송 만민매거진 촬영 시 헤어, 메이크업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님의 배려 속에 헤어&메이크업팀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 둘 모여 지금은 스물여섯 명이 되었지요. 교회 내 각종 예배나 행사, 특송 때는 물론 다니엘철야 기도회 코러스팀, GCN방송의 각종 프로그램 촬영 시 출연진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날이 갈수록 팀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육 간에 축복도 받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역시 사명을 통해 마음의 성결을 이룰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지킴받고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전도되어 아버지 오세복 집사님은 고엽제 후유증을, 어머니 엄성분 집사님은 협심증, 심장병 등 많은 질병을 치료받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시니 오직 감사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November 11

###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6. 11.20~ 11.26

<p><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님의 선</li> <li>■ 육체의 결여 3-7</li> <li>■ 창세기 강해 11-17</li> <li>■ 요한일서 강해 25-30</li> <li>■ 일곱교회 13-18</li> <li>■ 믿음을 책망하시니 10-14</li> </ul>	<p><b>GCN TV설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힘으로 (이수진 목사)</li> <li>■ 마음 (이희선 목사)</li> <li>■ 용기 강해 23 (신동초 목사)</li> <li>■ 열 재앙 26 (정구영 목사)</li> <li>■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라 (조현희 목사)</li> <li>■ 백보좌 대심판 (김승선 전도사)</li> <li>■ 노하기를 더디하는 슬기 (요경아 전도사)</li> </ul>	<p><b>예능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2</li> <li>■ 알콩달콩 여여쁜 율동 67</li> <li>■ 창조와 과학 20</li> <li>■ 내 마음의 찬양 34</li> <li>■ 모두 드려요 59</li> <li>■ English 14</li> </ul>	<p><b>해외성회 및 신규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지막 때 3</li> <li>■ 말씀 스페셜 11</li> <li>■ 러시아 연합대성회 2</li> <li>■ 믿음으로 걸어온 길 6</li> <li>■ 관능 스페셜 11</li> <li>■ 회상 18</li> </ul>
---	---	--	--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